

온라인 시민저널리즘 양상과 시민 영향력에 관한 한·미 간 비교 연구

‘유가’ 관련 보도를 중심으로*

양민제**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석사과정)

김민하***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조교수)

미국 사회에서 1980년대에 시작된 시민저널리즘(civic journalism)이 한국에서는 2000년대에 들어와서야 그 자리를 잡고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기성 저널리즘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태동한 대안 저널리즘으로서의 시민저널리즘은 증가하는 온라인 시민기자들과 온라인 뉴스 미디어 확산에 의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두 나라의 시민저널리즘 양상과 그 실천에 있어서의 시민 영향력이 몇몇의 요인에 따라 유의미하게 차이를 드러낸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본 연구에서는 그 요인들을 찾아내고 두 나라의 온라인 시민저널리즘을 실증적으로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 하에 미국의 CNN 『iReport』, 한국의 『오마이뉴스』라는 양국의 대표적 온라인 시민저널리즘을 다음과 같은 4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탈객관주의 정도,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 모색, 기사의 생산과 소비에 미치는 시민의 영향력 정도 그 결과로, 미국의 시민저널리즘에서는 전통적인 저널리즘의 객관주의로부터 벗어난 경우가 많고, 사회 문제에 대한 대안 및 해결책 모색과 시민 기자의 활용 정도에 있어서 한국의 시민저널리즘보다 앞서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기사 의제 설정에 있어서의 시민 의견 반영 정도나 생산된 기사에 대한 시민 참여 및 영향력에 있어서도 한국의 시민저널리즘보다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그에 반해, 한국의 시민저널리즘은 기사 의제 설정에 있어서의 여론 조사 반영에 있어서만 미국의 저널리즘보다 앞서 있었고, 정부와 관련된 특정 이슈에 대한 기사에 대해서만 시민의 영향력이 미치는 특징을 나타냈다.

주제어: 시민저널리즘, 시민 영향력, 온라인 저널리즘, 시민 참여, 공중 의견

* 이 논문은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이 후원한 the Congress of the Americas II 2009년 연례 회의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 tafy85@hanmail.net

*** jiyoungkim@skku.edu, 교신저자

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기존의 전통적인 저널리즘은 특정 집단의 미디어 소유권 집중과 전문 기자들에 의한 산업적·생산적 통제 등으로 적지 않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결국 이 문제점은, 기사 내용 및 형식의 다양성을 축소시켜 저널리즘의 편향성을 가져오고, 이는 시민과 저널리즘의 분열을 초래하기도 하였다(정회경·김사승, 2007). 또한 이러한 분열은 시민들이 기사를 통해 얻은 정보로 공공 쟁점에 대해 자신의 주변인들과는 논의하곤 하지만, 정작 기자와의 상호작용이나 같은 신문을 읽는 독자들과의 공공 쟁점에 대한 토론은 거의 하지 않는다는 기존 저널리즘의 한계(윤태진·강내원, 2001)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존 저널리즘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미국 사회에서 1980년대에 시작된 시민저널리즘(civic journalism)이 한국에서는 2000년대에 들어와서야 자리를 잡고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시민저널리즘은 탈객관주의적인 보도를 하거나 시민들의 공공 쟁점에 대한 토론을 유도하면서 기존 저널리즘의 근본적인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노력을 시도했다.

이후, 이러한 국내외의 시민저널리즘은 증가하는 온라인 시민 기자와 온라인 뉴스 미디어 확산에 의해 온라인이라는 환경에서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한국의 온라인 신문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시민기자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일반 시민들이 뉴스 생산에 참여하게끔 만들어, 기존의 저널리즘에 대한 실질적인 변화를 가지고 오기도 했다(김병철, 2008). 이러한 추세들은 앞서 설명했듯이, 일방적으로 수용자의 역할만 해오던 시민들이 생산자로서 뉴스를 만들고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등 주체적으로 변화하면서 확연히 기존 저널리즘의 모습과는 차이점을 드러내며 대안 저널리즘으로서 특성화된 양상을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큰 변화 및 발전에도 불구하고, 도입 시기에 있어서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은 한국 사회에서는, 시민저널리즘에 대한 의미나 실천에 있어서 자세히 다뤄진 실증적인 연구가 많지 않은 편이다. 특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새로운 환경인 온라인에서의 시민저널리즘의 가능성이나 영향력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평가되기도 한다(최영·김춘식·Barnett, 2004). 하지만 근래에 들어서는 기존의 전통적인 저널리즘과의 양적인 비교를 통한 시민저널리즘에 대한 연구들이 나오면서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발해진 국면에 접어든 편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연구의 대부분은 기사 스토리 구성, 즉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나 실천 양상에 대한 단순 비교·분석에만 국한되어 있어(김병철, 2008), 시민저널리즘의 구체적인 양상이나 실제 그 안에서의 시민의 영향력을 살펴보기에는 적합한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 연구는 한국의 시민저널리즘을 상대적으로 먼저 시작된 미국 사회의 그것과 비교하면서, 새로운 실험의 장이라 일컫는 온라인 환경 속에서의 실천 양상에 대해 실증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현재 우리나라 온라인 시민저널리즘의 수준과 그것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도출해내고자 한다.

2. 시민저널리즘의 특징과 기능

1) 시민저널리즘의 의미

시민저널리즘은 기존의 저널리즘보다 상대적으로 다양한 성격을 지니고 있어 명확한 정의는 찾기 힘들다. 공중과 언론 사이의 관계에 대한 논의 및 언론사의 경영 환경, 언론 자체의 개혁 운동적인 성격 등이 바로 그것이다(김병철, 2008). 일반적으로 시민저널리즘의 개념은 언론이 전통적인 객관보도의 관행을 벗어나 시민들을 지역공동체 및 공공 영역에 참여하도록 연계하는 역할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양식의 저널리즘이라 일컫는다. 즉, 이는 언론이 뉴스 정보 전달에만 집중하던 전통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공중의 인식과 행동의 촉매의 역할까지 담당하도록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김민남, 2003; 안병길, 2003).

반면에 이렇듯 다양한 긍정적인 기능을 가지는 시민 저널리즘은 기존 저널리즘에 대한 대체적 혹은 대안적 특성을 상대적으로 강조하면서 일정 부분 역기능적인 요소를 가지기도 한다. 이는 주로 기존 저널리즘의 관성적 보도 행태에 대한 보완점으로 시민저널리즘이 취하는 탈객관주의적 접근방식에서 많이 드러난다. 객관적인 사실(fact) 자체를 보도하는 데 집중하는 기성 저널리즘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부분의 시민 저널리즘은 특정 이념이나 주장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정한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하거나 주장하기도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보도에 있어서 불공정성이라는 문제에도달하게 된다. 이 같은 탈객관주의적 보도는 특히 미국에서의 시민저널리즘이 지역 공동체의 이슈를 집중적으로 조명한 점을 상기할 때 더욱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수가 있다(Schaffer, 2002; 이민웅, 2002). 지역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로 보도되는 지역관련 뉴스는 자칫 중립적인 자세를 잃고 특정 입장을 대변하는 불공정한 보도로 비난을 살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단지 객관성의 결함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공정성 및 균형성 등 객관성의 하위 개념들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어 불공정성의 시비를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주정민·박복길, 2007, 310쪽). 즉, 기성 저널리즘의 대안으로서 태동한 시민 저널리즘도 이상적인 저널리즘으로 자리매김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시민저널리즘과 공공저널리즘(public journalism)은 그 의미나 기능에 있어서 유사한 면이 많아 공통으로 사용된다. 이에 대해 로젠과 메리트(Rosen & Merritt, 1997)는 공공저널리즘을, 포히와 잔(Fouhy & Jan, 1995)은 시민저널리즘을 각각 선호하여 쓰곤 한다. 한편, 로젠은 시민저널리즘보다 공공저널리즘을 더 넓은 개념으로 접근하면서 시민들을 참여자의 역할을 갖게 만드는 기능을 들어 시민저널리즘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Rosen, 1999). 이에 비해, 채피와 맥더빗(Chaffee & McDevitt, 1999)은 공공저널리즘과 시민저널리즘을 뉴스 제작 자체와 제작된 뉴스에 의해 얻어진 시민들의 공공 생활의 변화로서 둘을 구분했다(최영, 2002 재인용). 그러나 『오마이뉴스』와 『iReport』 등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두 저널리즘이 한미 양국에서 모두 시민 기자들에 의한 시민저

널리즘을 표방하고 있는 점과 뉴스 생산 자체보다는 생산된 뉴스를 바라보는 시민의 관점이나 시민의 영향력을 높이는 것이 그 목적인 바, 본 연구에서는 공공저널리즘보다는 시민저널리즘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기로 한다.

반면, 앞서 설명했듯이 시민 저널리즘이 태동한 시기가 짧은 편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수행된 실증적 연구가 아직은 적은 편이지만, 몇몇 연구들이 경험적 연구를 통해 시민저널리즘의 특징에 대한 다양한 문제제기를 했다. 먼저 윤태진·강내원(2001)의 연구에서는 기존의 온라인 저널리즘 안에서 공공저널리즘적인 요소 혹은 특성을 찾아내려는 시도를 하여 온라인 신문들에서 다양한 사회 계층의 의견이 반영되거나 문제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과정중심적인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논의를 하며 기존 저널리즘에서 시민 저널리즘의 특성을 파악하는 연구를 하였다. 이후, 최영(2002)과 최영·김춘식·Barnett(2004)에 이르러서는 한국과 미국의 시민 저널리즘을 비교 대상으로 선정하여 시민 저널리즘의 일상적인 실천에 대한 직접적인 비교 분석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온라인 환경하에서 시민 저널리즘의 일상적인 실천은 그다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며, 비교 분석을 위한 좀 더 정교한 틀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정회경·김시승(2007)의 최근 연구는 일련의 온라인 저널리즘을 구성하는 온라인 신문과 오프라인 신문의 인터넷 사이트를 분석하여 온라인 시민저널리즘의 뉴스담론이 기성 언론의 ‘직업적’ 저널리즘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즉, 사회 이슈에의 개입과 역삼각형 구조를 벗어난 기사 형식, 주관적 분석과 평가를 특징으로 하는 탈객관화 등 다양한 차원에서 기성 언론과의 차별화가 이루어졌음을 제시하였다. 이에 반해, 김민하(2008)의 연구에서는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한 신문 탐사보도 기사들을 대상으로 공공 저널리즘의 가능성과 한계를 모색하는 연구를 시도하였다. 그 연구에 따르면, 탐사보도의 대부분이 탈객관주의적인 특징은 뚜렷이 드러내었으나, 사회 이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모색이나 일반 시민의 취재원 활용 정도와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에 있어서는 다소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논하며 결론을 맺었다.

2) 시민저널리즘의 대표적 기능

(1) 탈객관주의적 보도

앞서 살펴보았듯이 시민저널리즘의 목표는 전통적인 객관보도의 관행을 벗어나 시민들을 지역사회 및 공공 이슈에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다. 기존의 저널리즘에서는 전문기자(일반기자)들에 의해 객관적으로 쓰인 기사가 데스크를 거치면서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태도를 취하도록 만들어진다. 이러한 객관적인 기사는 기성 저널리즘의 역피라미드 구조에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 지극히 평면적이고 사실 전달에만 국한되기 일쑤다. 하지만 시민저널리즘은 역피라미드 구조를 벗어나 융통성 있고, 사실 전달을 넘어서 시민기자들의 주관적인 의견이 포함되면서 기사가 입체성을 띠기 시작했다는 의의를 가진다. 이와 같은 시민저널리즘의 기능에 대해, 미국의 퓨 센터(Pew Center for Civic Journalism) 연구팀¹⁾은 탈객관적인 기사로 인해 시민들로 하여금 공통의 관심사인 문제점들을 발견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그것의 해결책까지 찾도록 동기를 부여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Voakes, 1999). 한편, 우(Woo, 2005)는 중요한 이슈나 이야기의 객관적인 제시보다는, 투표 결과나 공중의 의견에 대한 미디어의 집중도로 기자들을 이끈다고 주장했다. 또한 케이스와 토니(Case & Tony, 1994)도 전통적인 저널리즘에서 시민저널리즘으로의 뉴스 움직임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조하던 저널리즘의

1) 퓨 센터(Pew Center for Civic Journalism)는 미디어가 공공 이슈와 지역 공동체 문제에 시민 참여를 진작시키기 위한 뉴스보도를 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들의 주요 목적은 뉴스 조직들을 그들의 커뮤니티와 다시 연결시켜주거나, 시민들이 토론 혹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 그들을 동원하는 것에 있다. 시민저널리즘을 구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실험적인 시도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물을 워크숍, 출판, 비디오 제작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언론인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다. 1989년에 설립된 이후로 총 3,520명의 언론인들이 50개에 이르는 워크숍에 참여했고, 10,000여 명의 언론인들이 뉴스레터를 구독하고 있으며, 226개의 뉴스 조직이 센터에서 지원한 121개의 시민저널리즘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고 보고된다(Pew Center for Civic Journalism 웹사이트 www.pewcenter.org).

전통주의의 중심에 일격을 가한다고 설명하며 시민저널리즘의 탈객관보도의 주장을 지지해주었다(Eksterowicz et al., 1998 재인용).

객관보도의 탈피를 내용적인 측면으로 자세히 보자면,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김민하, 2008). 첫 번째는 관점의 불균형이다. 기존 저널리즘은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관점의 측면을 모두 담으려고 노력하면서 관점의 균형을 이룬다. 그러나 시민저널리즘은 특정 관점에 더 비중을 담아서 보도함으로써 공중들로 하여금 그 이슈에 대한 집중도와 그것에 대한 시민들의 논의까지 이끌어냄으로써, 기존 저널리즘보다 좀 더 깊이 있고 심층적인 내용의 기사 생산을 지향하는 모습까지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주관적 주장이 담긴 기사 작성이다. 이는 관점의 불균형과 비슷한 맥락에 있는 것으로, 특히, 시민 기자에 의한 주관적 주장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 퓨 센터가 제시한 시민기자의 주요 역할은 기사 생산을 통해 시민들에게 대화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을 넘어서서 시민들이 직접 그 해결책을 위해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Voakes, 1999). 그러므로 시민기자는 특정 관점에 더 비중을 두는 등 기자의 주관을 다양하게 그리고 빈번히 부각하여 그에 대한 시민의 활동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위에서 언급한 관점의 불균형과 주관적 주장 모두 기존의 전통 저널리즘의 객관보도로부터의 탈피를 의미하는 것으로 시민저널리즘의 두드러진 특징과 기능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2)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및 해결책 모색

탈객관주의에서 더 나아가 시민저널리즘의 사회 문제에 대한 대안 및 해결책 제시라는 기능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시민저널리즘에서도 객관 보도를 하고 있는 기사는 분명 존재하지만, 모든 기사들의 귀결점은 사회 및 공공 문제의 해결에 있다(김민하, 2008; 윤태진·강내원, 2001). 이와 같은 기능은 단순히 사건에 대한 사실만을 나열하는 기사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단순히 팩트만 전달하게 될 때, 기사를 생산하는 기자도, 기사를 소비하고 있는 공중도 사회 문제에 대해 제3자의 눈을 갖게

되어, 자신이 경험하고 있고 스스로가 풀어야 할 사회적 문제임에도 그대로 방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는 이슈에 대한 갈등이 부각되면서 주로 ‘A가 아니면 B’라는 식의 이분법적인 내용이 많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전통적인 저널리즘의 문제점과 같은 맥락으로 살펴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안 저널리즘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시민저널리즘에서는 갈등을 최대한 피하고 나아가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지향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메리트(Merritt, 1995)는 시민저널리즘에 있어서의 기자는 의도적으로 불거리나 구경거리식의 보도 방식을 최소화하고, 겪고 있는 사회 문제로 인해 위협받고 있는 사회 구성원들의 핵심 가치를 기사를 통해 언급하면서, 뉴스를 소비하는 일반 시민으로 하여금 토론 혹은 숙의를 이끌어내게 된다고 설명한다. 결국 그로 인해 사회 문제에 대해 피부로 느끼고 방관자가 아닌 실천자임을 깨닫게 만들어 의사결정에 이르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또한 이에 대해 포히와 슈이퍼(Fouhy & Schaffer, 1995)는 시민저널리즘의 총체적인 목적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시민들 간의 커뮤니티를 재연결하고 그들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게끔 기사를 작성하여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을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방송뉴스 조직과 신문 조직을 도와주는 것이라 했다. 물론 시민저널리즘의 해결책과 대안 모색이라는 목적 때문에 야기되는 부작용을 인지할 필요는 있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짐으로써 정치 엘리트들과 정책 입안자들과 연계하여 긴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따라서 기존의 감시견 역할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부작용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시민저널리즘의 관료화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나름대로의 정당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김민남, 2003).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저널리즘의 노력은 문제제기와 대안모색이라는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김민하, 2008; 윤태진·강내원, 2001). 먼저 문제 제기란 이슈에 대한 문제점을 기자가 제시함으로써 간과할 수 있었던 사회 문제를 — 뉴스를 소비하기 전에는 알 수 없었던 공중들을 포함하여 — 뉴스 소비자들로 하여금 깨닫고 지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두

번째인 대안 모색은 단순히 문제만 제기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기자의 주관적 주장이 포함되는 등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세를 보임으로써 사회 문제에 대해 더 적극적인 태도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3. 시민저널리즘의 생산과 소비에 있어서 시민의 영향력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시민저널리즘은 기존의 전통 저널리즘과는 확연히 대조되는 기능적 특징이 존재한다. 이러한 시민저널리즘의 기능적 실천에 대한 분석을 넘어서 시민의 영향력의 정도를 살펴보는 것은 한미 간 온라인 시민저널리즘 비교를 위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분석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물론 시민들의 참여에 과도하게 의존함으로써 파퓰리즘적인 보도 행태를 보일 수도 있는 문제점이 있기에 시민들이 시민저널리즘 수행에 참여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시민 참여의 양상을 뚜렷이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시민의 영향력 분석은 뉴스 생산을 기준으로 뉴스가 생산되기 이전 상황과 뉴스가 생산되어 공중들에 의해 소비된 후의 상황에 있어서의 시민 영향력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뉴스의 생산에 미치는 시민의 영향력

시민저널리즘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일반시민들이 뉴스의 생산자로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의 전통적인 저널리즘은 주로 엘리트 집단을 위주로 하여, 특히 언론사 출신의 전문 기사단에 의한 기사들에 국한되었다. 이로 인해 기사를 매개로, 기자는 생산자, 공중은 소비자라는 이분법적 구도가 만들어지고, 이는 결국 기사 의제 설정에 있어서 상의하달식 구조를 만들어 내는 토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하지만 시민저널리즘은 이러한 틀에서

벗어나, 기사의 생산에 시민들이 참여하게끔 만들고 기사 속에서 인용되는 취재원 또한 일반 시민들로 많이 채워지는 특징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 코바치와 로젠티엘(Kovach & Rosentiel, 2001)은 시민의 참여 및 토론이 잘 이루어지게끔 하는 것이 시민저널리즘의 목표라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배경에서 시민들은 총체적인 정보원이나 취재원으로서 뉴스 미디어로의 직접적 접근이 용이하게 되면서, 뉴스를 공공 가치 영역의 주요점으로 인식하게 한다고 설명했다(최영, 2002 재인용).

이 같은 뉴스의 생산자로서의 시민의 역할은 세 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로는 얼마만큼의 기사가 시민기자들에 의해 생산되었는지 여부이다. 둘째, 기사의 취재원으로서 일반 시민들의 비중이다. 세 번째는 기사의 의제 설정에 있어서 시민들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시민 기자에 의해 쓰이거나 시민취재원을 많이 쓰는 것 또한 기사의 의제 설정에 시민들의 영향력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보도되는 기사의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 얼마나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뉴스 생산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늠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시민들의 의제가 궁극적으로 기사의 의제 설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은 하의상달식 의제 설정이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최영의 연구에서는 시민저널리즘의 실천 정도의 평가 기준에서 기사의 의제 설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평가 기준들을 내세워 설명했다(최영, 2002). 먼저, 기사 내에 공중들의 핵심가치가 내재되어 있는지에 대한 평가로, 시민들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포함 여부를 말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기사가 이슈관련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특정 이슈에 대한 정보를 기사 속에서 자세히 풀어내줌으로써 이슈에 대한 시민들의 영향력 정도가 분석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사 작성 시 여론조사(research)·공공포럼(public forum)·타운홀미팅(town hall meeting)²⁾·

2) 특정한 규칙이나 지침이 존재하지 않는 타운 홀 미팅은 비공식적인 공중의 미팅이다. 이는 커뮤니티에 소속된 이들이 그들 스스로의 의견을 표명하게 하고, 공인이나 선출된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며, 모든 이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특징을

포커스 그룹(focus group) 등의 활용 여부를 분석함으로써 기사 내용에 시민들의 영향력이 미치는 다양한 종류의 방법들을 제시했다(최영, 2002). 반면, 퓨센터 연구팀도 이에 대해 공공 기관으로부터 설정된 의제들을 시민들의 의제로 대체하기 위해 거부하는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하는가를 의제 설정에 있어서 시민 영향력의 기준으로 언급하기도 했다(Voakes, 1999).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하의상달식 의제설정 방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평가 기준을 세우고자 한다. 그 첫 번째는 기사를 통해 사회 문제를 제시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했는지 여부로, 시민기사에 의한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주장이 아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시민들의 의견을 이야기한다. 두 번째는, 기사의 내용에 여론조사가 포함되었는지 여부이다. 최영의 연구(2002)에서 제시했던 공공포럼이나 타운홀미팅, 포커스 그룹 등의 여타 종류의 것들은—특히 한국의 저널리즘에 있어서—존재가 거의 미비하므로 제외하기로 한다.

2) 뉴스의 소비에 미치는 시민의 영향력

두 번째 시민의 영향력 평가는 뉴스가 이미 생산되어 공중들에게 제공된 후에, 그것을 소비한 시민들은 그 뉴스에 대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영향력은 특히 본 연구에서 ‘온라인’ 시민저널리즘을 분석하고자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기존의 종이 신문은 그 기사에 대한 구체적인 시민들의 영향력을 분석하기에는 뚜렷한 한계가 존재했다. 신문을 구독하는 시민들에게 일일이 서베이 조사를 통해 어느 정도 혹은 어떤 방식으로 뉴스 기사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었지만,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온라인 뉴스 미디어의 경우 기사의 소비에 대한

가지고 있다. 특히 오늘날처럼 인구가 많아질수록, 이질적인 커뮤니티 안에서 타운홀 미팅은 사람들이 그들의 의사 결정이 공직자 등에게 영향력을 미친다거나 공직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수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끔 만드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더욱 자주 열린다(김민남, 2003).

시민들의 영향력은 쉽게 접할 수 있는 댓글 분석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여기서 댓글이란 그 수를 세는 것으로서 영향력 정도를 평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댓글을 통해 면대면 접촉이 아닌 간접적 토론이나 네트워킹 형성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여부도 알아 볼 수 있어 적당한 평가 기준이라 생각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전통적인 저널리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대안 저널리즘으로서 등장한 시민저널리즘의 종합적인 특징을 중심으로 기성 저널리즘과 시민저널리즘을 비교하면 <표 1>과 같다.

4. 한·미 간 시민저널리즘 환경의 차이

미국의 시민저널리즘은 미국의 정치전통, 시민의 토론 및 참여문화, 공동체 자치주의 등에 기반을 둔 언론운동으로 볼 수 있지만, 한국의 경우는 지역사회 의 공동체자치의 문화가 상대적으로 빈약하여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이 의사

<표 1> 전통저널리즘과 시민저널리즘 비교

분류 기준	전통적인 저널리즘	시민저널리즘
언론의 기능	파수견(Watch-dog)	안내견(Guide-dog)
기사 내용의 특성	객관성, 공정성	주관성, 공공성
뉴스 의제 설정 방식	상이하달 방식 의제설정 (top-down agenda setting)	하의상달 방식 의제설정 (bottom-up agenda setting)
주요 보도 내용	팩트에 근거한 문제 보도	해결책 혹은 대안을 모색하며 문제점 혹은 문제해결보도
수용자 특성	수동적, 소비자의 특성	능동적, 생산자의 특성
보도 역할	전달 저널리즘, 일방향 저널리즘	대화 저널리즘, 쌍방향 저널리즘
미디어의 접근 방식	중립적, 객관적 자세	참여적, 해결지향적 자세
보도 양식	이벤트 지향적	과정 지향적
기자의 역할	제3자적 관찰자	공동체 참여자

결정을 하는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부실하다고 평가된다(황용석, 2001). 주로 두 나라는 언론 시장 구조와 저널리즘 전통 등의 2가지 기준으로 비교되곤 한다. 첫 번째 기준인 언론 시장 구조의 차이는 지역 중심의 미국과 중앙 집중 구조의 한국으로 비교하여 살펴볼 수 있겠다. 먼저 미국은 지방자치제도의 발달에 기반하여 전체 일간 신문사의 약 90% 이상이 해당 지역에서 독점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지역 중심의 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와는 다르게 한국의 사회 구조는 주요 의사결정의 축이 중앙에 압도적으로 배치되어 특히 수도권 지역에 대한 집중도가 정치·경제·문화적으로 매우 높은 경향을 보인다. 이렇듯 지역의 여론이 중심이 되는 미국에 비해, 중앙 집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국은 문화적인 획일성을 조장하며 지역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의 약화를 초래하여 지역의 매체 시장이 중앙의 하도급 시장으로 종속되고 민주주의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지역 언론이 약화되는 등 언론 시장의 한계가 두드러진다(김민남, 1998, 2003; Thorson·심재철·윤도일, 2005).

한편, 저널리즘의 전통에서도 두 나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미국의 객관주의와 한국의 계몽주의가 바로 그것이다. 미국의 언론은 주로 자유주의 철학에 바탕을 둔 객관주의 보도 방식의 모델인 것에 반해, 한국 언론은 시민 사회에 과다하게 개입하는 엘리트 위주의 계몽주의적 모델이라는 것이다. 한국의 언론사를 살펴보면, 국민계몽과 개화사상 전파를 목적으로 『한성순보』와 『독립신문』이 발간되는 등, 초기 언론의 모태가 계몽주의적 사고에서 출발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계몽주의적 저널리즘의 전통은 시민들에게 하향식 독점적 언론을 이용하여 권위주의적이고 보수적인 특성을 가지게 되어 시민저널리즘과는 현저한 차이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김민남, 1998, 2003).

이같이 서로 다른 저널리즘의 토양은 양국의 시민저널리즘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지역 언론이 활성화된 환경 속에서 이미 미국 전역에서 발간되는 신문의 1/5 이상이 시민저널리즘을 구현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때(Friedland & Nichols, 2001; 김민하, 2008 재인용), 미국에서의 시민저널리즘은 한국에 비해 이미 완숙한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객관주의의

기반이 된 자유주의 철학의 전통 역시 서로 다른 관점에 대한 격의 없는 비판의 문화를 일찍이 조성하였기에 시민저널리즘이 추구하는 사회문제에 대한 비판적 기능을 강화시키는 데 일조했다고 평가된다(Friedland, 2001).

5. 연구 문제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은 미국보다 시민저널리즘이라는 개념부터 실행까지 다소 늦게 진행된 편이기 때문에 기존 언론 매체 환경 속에서 실천되기에는 적용 기간이 짧아 두 시민저널리즘을 비교하는 것에 있어서 일정 부분 무리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에 비해 진행 속도가 매우 빨라, 그 양상이 엇비슷하게 나타나는 온라인에서의 실천 정도는 양국 간의 비교 분석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두 나라의 온라인 시민저널리즘이 어떤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고, 어느 정도 실천되고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시민저널리즘의 기능’과 ‘시민의 영향력’이라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은 4가지의 연구문제를 도출하였다. 우선 첫 번째 부분은 시민저널리즘의 대표적 기능에 관한 부분으로 다음의 두 가지 연구문제를 탐구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한국과 미국의 온라인 시민저널리즘은 탈객관보도의 정도에 있어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한국과 미국의 온라인 시민저널리즘은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대안의 모색 등의 시민저널리즘의 기능 수행에 있어 차이가 있는가?

한편, 두 번째 부분은 시민저널리즘의 생산과 소비에 있어서 과연 시민은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했다.

연구문제 3: 한국과 미국의 온라인 시민저널리즘은 뉴스 생산에 있어서 시민의 영향력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 한국과 미국의 온라인 시민저널리즘은 생산된 뉴스의 소비에 대한 시민의 영향력에 차이가 있는가?

6. 연구 방법

1) 분석 대상

본 연구는 각국의 대표적인 시민저널리즘 웹사이트를 골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한국의 ‘시민 기자에 의한 시민저널리즘’을 표방하고 있는 대표적 시민저널리즘인 『오마이뉴스』는 일반 시민이 생산하는 기사가 전체 기사的大部分을 차지하면서도 전문적인 저널리스트가 이에 대한 일정수준의 질적 통제를 가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다. 태동 시기는 2000년대 초로서 현재 약 1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이슈들을 만들어내면서 한국의 시민저널리즘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시민저널리즘 사이트인 『iReport』는 CNN에서 출범한 시민저널리즘 사이트로서 일반 시민이 거의 대부분의 기사를 생산해내고 일부의 기사는 CNN 정규방송에서 보도되었던 기사로 구성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 『iReport』는 2008년 초에 만들어져 그 역사는 매우 짧은 편이지만, 이미 생산된 기사의 양이나 질에 있어서 기존의 다른 시민저널리즘과 견주어 봐도 손색없을 정도로 성장한 시민저널리즘이다. 두 사이트 모두 구조적 통제가 적은 편이고, 시민저널리즘이라는 취지로 시작된 점, 각국에서 인지도가 높은 사이트라는 점, 여타의 시민저널리즘보다 상대적으로 최근에 태동하여 근래의 시민저널리즘의 양상을 잘 반영하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어 비교 대상으로서 적절할 것이라 예상되었다. 또한 시민에 의해 만들어진 기사를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토론을 할 수 있게끔 만들고, 큰 이슈를 만들어내는 『오마이뉴스』와 시민에 의해

만들어진 뉴스가 CNN이라는 거대 뉴스 매체에 오를 수 있는 『iReport』 모두 그 영향력이 작지 않아, 두 나라의 온라인 시민저널리즘에 대한 실천 및 시민의 영향력 정도를 두드러지게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2) 분석 범위

본 연구의 분석 대상 기간으로는 2008년 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약 11개월간의 기사를 검색하여 각 사이트 기사를 분석했다. 여기서 『iReport』는 연구자가 원하는 기간별로 검색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검색 방법상의 한계로 인해, 두 나라 모두에서 이슈화되는 ‘유가(油價)’라는 특정 검색어를 통해 기사를 검색·추출하였다. 이는 현재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조가 되었던 이슈로 양국 공통으로 중요하게 간주되었던 시의성 있는 이슈라고 할 수 있다. 두 사이트 모두 ‘유가’, ‘oil price’ 등의 검색어를 이용하였고, 그 결과 『오마이뉴스』에서는 약 630개, 『iReport』에서는 약 500개 정도의 기사가 추출되었다. 이후 검색된 모든 기사들은 체계적 무선 표집(systematic random sampling)의 방법으로 추출하여, 『오마이뉴스』와 『iReport』 각각 200개씩의 샘플을 도출했다.

3) 분석 유목 설정 및 분석 방법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대로, ‘시민저널리즘의 기능’에 대한 분석은 크게 탈객관보도의 정도와 사회문제의 대안 및 해결책 모색 등 두 가지의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탈객관보도의 정도는 기사의 내용이 객관적인 것에서 어느 정도 탈피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특정 관점에 비중을 더 두는 ‘관점의 불균형 여부’와 기자 자신의 ‘주관적 주장 포함 여부’ 등으로 나누어 분석할 것이다. 다음으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및 해결책을 제시하는 시민저널리즘 기능의 수행 정도는 기존 저널리즘과 가장 크게 대비되는 기능으로서, 비판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 ‘문제 제기 여부’와 그에 대한 ‘대안 모색 여부’를 살펴볼 것이다.

두 번째로, ‘시민 영향력’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기 위해, 기사의 생산을 중심으로 기사 생산 전과 생산 후, 각각의 상황에서 시민의 영향력을 분석할 것이다. 먼저 기사가 작성되기 이전에 기사가 만들어지기까지, 즉 기사의 의제가 설정되는 것에 있어서 시민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네 가지의 분석을 수행하였다. 시민기자에 의해 기사가 작성된 빈도, 시민이 취재원으로 활용된 정도, 의제설정에서 있어서 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정도, 여론조사가 반영된 정도 등이 그것이다. 여기서 시민이 취재원으로 활용된 정도는 일반적으로 일컫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 시민’이 아닌, ‘특정 시민’을 말하며, 주로 인터뷰 등의 접촉으로 직접적인 취재원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반면 의제 설정에서 있어서 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정도는 ‘일반 시민’들의 의견이나 주된 생각 등을 기자가 기사를 통해 풀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우리 국민들은 …라고 생각한다’ 혹은 ‘서울시민들은 …에 갈등을 느끼는 바이다’ 등으로 언급되는 것이다. 한편, 기사가 생산되어 독자들에게 보급된 후, 시민들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 특히 온라인 환경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 댓글의 수를 세어보고자 한다.

4) 코더 간 신뢰도 측정

분석대상 기사는 신문방송학을 전공한 두 명의 대학원생에 의해 코딩되었다. 연구자는 기사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이전에 객관적인 연구를 위하여 코더 간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 분석대상 총 400건의 기사 중 10%를 랜덤으로 추출하여 신뢰도 계수를 도출하였다. 신뢰도 계수는 Holsti(1969)의 공식으로 도출했고, 그 결과 코더 간 신뢰도는 각 항목별로 다음과 같이 도출되어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다고 할 수 있다. 관점의 불균형 여부(0.80), 주관적 주장 포함 여부(0.925), 문제 제기 여부(0.80), 대안 모색 여부(0.825), 시민 기자 여부(1.00), 시민 취재원 여부(0.95), 일반 시민 의견 포함 여부(0.75), 여론 조사 포함 여부(1.00), 댓글 수(1.00)

7. 연구 결과

1) 탈객관주의 정도 차이

앞서 설명했듯이, 시민저널리즘의 실천 정도의 첫 번째 분석 기준으로 기존 저널리즘의 객관주의에서 어느 정도 탈피했느냐를 분석했다. 이러한 ‘탈객관주의’의 정도는 기사 속에서 특정 관점이 부각되어 관점의 균형을 깬지여에 대한 여부와 기자 자신의 주관적인 주장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등의 두 가지로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표 2>의 기사수와 백분율로 제시하였다(괄호 안의 수는 기사수).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관점의 불균형과 주관적 주장, 두 가지 분석 항목에 있어서 두 나라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먼저, 관점의 불균형의 경우, 『오마이뉴스』는 대체로 관점의 균형을 맞추어 객관적인 관점을 유지하려는 모습이 많이 보였다. 즉, 특정한 집단이나 개인의 눈으로 한 이슈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사 속에서 지극히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관점으로 풀어나감으로써, 대체로 기존 저널리즘의 맥락을 유지하고 있는 양상이었다. 이에 반해, 『iReport』는 특정 관점으로 이슈를 바라보는 관점의 불균형의 모습이 69% 정도로 빈번히 눈에 띄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

<표 2> 탈객관주의 정도

	관점의 불균형			주관적 주장		
	Yes	No	Total	Yes	No	Total
오마이뉴스	37.5(75)	62.5(125)	100(200)	43(86)	57(114)	100(200)
iReport	69(138)	31(62)	100(200)	64.5(129)	35.5(71)	100(200)
Total	53.25(213)	46.75(187)	100(400)	53.75(215)	46.25(185)	100(400)
	Value		df	Value		df
Pearson Chi-Square	39.858***		1	18.595***		1

*** p<.001

한 기사의 경우, 사회의 이슈나 문제에 대해 능동적으로 바라보고 생각하여 기사를 작성하기 때문에 주로 문제를 일으키는 주체에 대한 비판적인 모습을 자주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두 나라 저널리즘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chi^2=39.858, p < .001$).

탈객관주의 정도의 두 번째 기준인 주관적 주장 여부 또한 <표 2>에서 나타나듯이 양국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18.595, p < .001$). 『오마이뉴스』는 기자가 개인적으로 주관적인 주장을 보이기보다는 이슈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기사를 작성했고, 전체 기사 중 43%만이 기자의 개인적인 주장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이에 반해, 『iReport』는 전체 기사의 64.5%가 기자의 주관적인 주장을 담아 이슈에 대한 기사를 작성했다. 이러한 기사에서는 ‘고유가 시대의 문제점을 풀어내기 위한 기자의 개인적인 견해’를 담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위에서 살펴본 <연구문제 1>에 대한 분석 결과와 같이, 미국의 『iReport』는 한국의 『오마이뉴스』보다 객관보도의 틀을 벗어난 경우가 유의미하게 더 많이 존재했다. 즉, 균형 잡힌 관점으로 이슈를 바라보지 않고, 기자들의 주장이 많이 담겨 있어 전통적인 저널리즘의 특징인 객관주의적인 보도로부터 탈피하여 시민저널리즘을 실천하려는 노력이 더 많이 보였다고 할 수 있겠다.

2)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및 해결책 모색 차이

시민저널리즘의 기능을 살펴보기 위한 두 번째 분석 항목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제시 여부였다. 본 항목은 사회적인 문제점을 제시했는지 여부와 그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 등, 두 가지로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표 3>과 같았다.

<표 3>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듯이, 사회적 문제 제시에 있어서는 두 나라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한국의 『오마이뉴스』는 전체 기사 중 37%에 해당되는 기사만이 고유가에 대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표 3> 사회문제의 제시 및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 모색

	문제 제시			대안 모색		
	Yes	No	Total	Yes	No	Total
오마이뉴스	37(74)	63(126)	100(200)	15(30)	85(170)	100(200)
iReport	50.5(101)	49.5(99)	100(200)	17.5(35)	82.5(165)	100(200)
Total	43.75(175)	56.25(225)	100(400)	16.25(65)	83.75(335)	100(400)
	Value		df	Value		df
Pearson Chi-Square	7.406**		1	.459		1

** p < 0.01

문제제기하는 양상을 보여주었고, 그 밖의 기사들은 사회 문제로서 제기하기 보다는 현재 ‘고유가’라는 이슈를 맞닥뜨린 사회 현상을 서술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이와 달리 미국의 『iReport』는 전체 기사의 50.5%에 해당되는 기사들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서 언급하고 있었다. 전체의 반 이상의 기사들이 고유가 현실에 닥친 문제점에 대해 기자 자신이 생각하는 개인적인 문제점부터 사회 전반적인 문제점까지 나열하여 이로써 기사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양국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chi^2=7.406, p < .01$).

그러나 이러한 사회문제에 대한 대안 모색의 분석에 있어서는 두 나라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도출되지 않았다. 『오마이뉴스』와 『iReport』는 각각 전체 기사의 15%, 17.5%에 해당되는 기사들만이 대안 혹은 해결책에 대한 모색을 하고 있었다. 주로 대안을 모색하는 기사는 유가를 포함하여 물가 안정을 위한 해결안을 사회적 혹은 개인적 관점에서 제시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기사들의 빈도는 두 나라의 저널리즘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없이 적게 존재하여, 아직까지는 두 언론 모두 시민저널리즘의 대안 모색 기능이 적극적인 양상을 띠지는 않았다고 분석되었다($\chi^2=.459, p < .498$).

결국 <연구문제 2>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의 『오마이뉴

스』는 미국의 『iReport』에 비해 사회적 문제에 대한 언급과 그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제시에 있어서도 그 실천 양상 정도가 낮은 편이었다. 하지만 미국의 저널리즘은 기자들이 공공이슈를 사회적 문제로 적극적으로 표출하여 기사를 읽는 수용자들이 그 문제점을 인식하게 만드는 점에 있어서는 시민저널리즘의 실천 정도가 높은 편이었지만, 그에 반해 그러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모색은 한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3) 뉴스 생산에 있어서의 시민 영향력의 차이

다음으로는 뉴스의 생산에 있어서의 시민들의 영향력이 양국의 시민저널리즘에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를 분석하였다. 이는 네 가지의 분석을 통해서 검증되었는데, 첫 번째는 시민기자에 의한 보도 빈도이고, 두 번째는 시민들이 취재원으로 활용된 정도이다. 취재원 분석의 경우 시민인지 시민이 아닌지에 대한 2점 척도로 코딩을 수행하였는데, 이는 하나의 완결된 기사가 분석 단위가 되어, 한 기사에 취재원이 몇 명이 나왔는지가 아니라 한 기사에 시민 취재원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2점 척도는 단순한 분석이 될 수 있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지만, 시민과 비시민의 구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문제 3>에 대한 결과는 <표 4>와 같이 도출되었다.

<표 4>에서 보여주듯 시민기자의 정도는 두 나라간의 극명한 차이가 존재했으나, 취재원으로서 시민이 활용된 정도의 측면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오마이뉴스』는 전체 기사 중 68.5% 정도의 기사가 시민 기자에 의해 쓰여졌고, 나머지는 다른 신문사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올리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특히 다른 신문사의 내용을 그대로 올리는 기사는 주로 객관적인 관점으로 이슈를 언급하는 경우가 많아 시민 기자에 의해 쓰인 기사와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차이점을 보였다. 이에 반해, 『iReport』의 경우에는, 전체 기사 100%가 시민 기자에 의해서만 쓰였다는 것이 주목해

<표 4> 뉴스 생산에 있어서의 시민의 영향력

	시민 기자			시민 취재원		
	Yes	No	Total	Yes	No	Total
오마이뉴스	68.5(137)	31.5(63)	100(200)	33.5(67)	66.5(133)	100(200)
iReport	100(200)	0(0)	100(200)	27(54)	73(146)	100(200)
Total	84.25(337)	15.75(63)	100(400)	30.25(121)	69.75(279)	100(400)
	Value		df	Value		df
Pearson Chi-Square	74.777***		1	2.002		1

*** p<.001

볼 만한 점이다. 특히, 『오마이뉴스』나 『iReport』가 시민저널리즘을 표방하고 있는 대표적인 저널리즘이지만 『iReport』만이 모든 기사가 시민 기자에 의해 쓰인다는 점은 그 차이가 시사하는 점이 작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다($\chi^2 = .74.777$, $p < 0.001$).

반면, 시민 취재원의 반영 정도에 있어서는 두 나라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단순한 기사 개수로 『오마이뉴스』(N=67)가 『iReport』(N=54)보다 조금 더 많아 보이지만, 두 언론사 모두 시민 취재원의 반영 정도는 현저하게 낮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이슈인 ‘유가’에 대한 기사들이기 때문에 시민 취재원의 정도가 높게 나올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 검색어에 대한 한계점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두 나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조차 발견되지 않은 점이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chi^2=2.002$, $p < .157$).

결국 <연구문제 3>에 대한 분석 결과, 한국의 『오마이뉴스』는 시민 기자의 활동 정도가 절대적으로 적은 편은 아니었지만, 미국의 『iReport』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발한 편은 아니었다. 또한 기존의 다른 신문사의 기사를 그대로 가져오는 양상을 보이는 『오마이뉴스』에 비해 『iReport』에서 쓰인 기사가 CNN 등의 다른 언론사의 기사로서 내보일 수 있는 것은 주목해야 할 시민저널리즘의 또 다른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두 나라 모두 시민 취재원에 대한 활용 정도는 낮은 편이고, 이 점에서 두 나라 사이의 현저한 차이가

보이지 않는 점은 시민 기자의 활동에 비해 좀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기사가 작성되기까지에 있어서 시민들의 기사 생산에 대한 영향력이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 살펴보기 위해 또 다른 두 가지의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는 기사 의제 설정에 일반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여론 조사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로, 그 결과는 다음의 <표 5>와 같았다.

<표 5>의 결과가 보여주는 것처럼, 기사 의제 설정에 대한 시민의 영향력 차이는 두 나라 간에 분명히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먼저, 시민 의견 포함 여부에 대한 두 언론사의 양상은 현저하게 달랐다. 『오마이뉴스』는 기자의 개인적인 주관적 주장이 많지 않게 포함되었던 것처럼 의제 설정에 있어서 일반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정도도 낮은 편이었다. 45.5%의 기사만이 이슈에 대한 일반 공중들의 의견을 담고 있었고, 그나마도 기사의 논조에서나 마 미미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하지만 이에 비해 『iReport』는 전체 기사 중에서 76.5%의 기사에 시민의 의견이 포함된 의제가 설정되어 있었다. 이러한 기사들은 대부분 시민들이 해당 이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직접적인 표현으로 언급하고 있었고, 따라서 의제로서의 시민 의견은 아주 중요하게 취급되는 편이었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매우 유의미하게 뒷받침되었다($\chi^2=40.395$, $p < 0.001$).

<표 5> 기사 의제 설정에 대한 시민 영향력 차이

	시민 의견 반영			여론 조사		
	Yes	No	Total	Yes	No	Total
오마이뉴스	45.5(91)	54.5(109)	100(200)	2(4)	98(196)	100(200)
iReport	76.5(153)	23.5(47)	100(200)	0(0)	100(200)	100(200)
Total	61(244)	39(156)	100(400)	1(4)	99(396)	100(400)
	Value		df	Value		df
Pearson Chi-Square	40.395***		1	4.040*		1

* $p < 0.05$, *** $p < 0.001$

반면, 주로 타운홀미팅 혹은 포커스그룹 미팅 등과 같은 방법으로 시민 의견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본 연구 대상인 한국이나 미국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쓰이는 방법은 여론조사이다. 더욱 분명히 의제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인 여론 조사를 반영했는지 여부에서는 전혀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전체 기사 모두에서 리서치 조사에 대한 결과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iReport』에 비해 『오마이뉴스』에서는 2%에 해당되는 기사에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의 결과가 언급되어 있었다. 물론 0셀이 포함되었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chi^2=4.040$, $p < 0.05$)가 그리 크게 시사하는 바는 없지만, 앞서 살펴 본 분석항목들과는 다르게 유일하게 한국의 저널리즘이 미국의 그것보다 한발 앞서 나가있다고 볼 수 있는 점이라는 것에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 하겠다.

결론적으로 <연구문제 3>에 대한 결과로서, 취재원으로서 일반시민의 활용 정도를 제외한, 시민기자의 활동, 의제 설정에서 일반 시민 의견 반영 정도 등에 있어서 미국의 『iReport』가 『오마이뉴스』에 비해 다소 앞선 경향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위의 시민 영향력에 관한 네 가지 변인을 동시에 고려하여, 각 언론사 별로 뉴스 생산에 있어서 시민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비교하기 위하여 5점 척도로 코딩하였다. 즉, 한 기사 안에 네 가지 요소가 모두 존재했을 때는 ‘매우 강하다’로, 하나의 요소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에는 ‘매우 약하다’로 코딩하여 시민 영향력의 정도를 판별할 수 있도록 분석하여 <표 6>과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전반적으로 뉴스 생산에 대한 시민 영향력에 있어서 두 나라 간의 유의미한 차이점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chi^2 = 72.008$, $p < 0.001$). 한국의 『오마이뉴스』는 전체 기사 중 27%의 비교적 많은 기사들이 뉴스 생산에 있어서의 시민 영향력 정도가 전혀 보이지 않는 부분에 속하는 것에 반해서, 미국의 『iReport』는 전체 기사 중 대부분의 기사들이 보통 수준의(56%) 혹은 영향력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 기사들(24%)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6>은 앞서 살펴보았던 <표 4>나 <표 5>에서

<표 6> 뉴스 생산에 있어서의 시민 영향력의 차이

	뉴스 생산에 대한 시민 영향력 정도					Total
	매우 약하다	약하다	보통이다	강하다	매우 강하다	
오마이뉴스	27(54)	20.5(41)	30(60)	21.5(43)	1(2)	100(200)
iReport	0(0)	20(40)	56(112)	24(48)	0(0)	100(200)
Total	13.5(54)	20.25(81)	43(172)	22.75(91)	0.5(2)	200(400)
	Value				df	
Pearson Chi-Square	72.008***				4	

*** p<0.001

네 가지 변인을 분리하여 각각에 대해 이분법적으로 나누었던 분석에서 나아가, 총체적으로 뉴스 생산에 있어서의 시민의 영향력을 명확히 재확인해본다는 것에 의의를 둘 수 있겠다.

4) 생산된 기사에 대한 시민 영향력 차이

기사가 생산된 후 독자들에게 그것이 소비될 때 시민의 영향력은 두 언론사에 어떻게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는 각 사이트의 댓글을 분석했다. 상호작용성의 도구로서 볼 수 있는 댓글은 이미 생산된 기사에 대해 시민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내놓고 서로 토론을 할 수 있는 일종의 공론장의 형태를 갖고 있다. 이 댓글의 유무를 분석함으로써 각 나라의 시민저널리즘에 있어서 생산된 기사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 도출된 <연구문제 4>에 대한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표 7>에서 알 수 있듯이, 두 저널리즘 사이에서 댓글의 유무 여부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chi^2=1.301, p < 0.001$). 전체 기사 중 31.5%에 해당되는 기사에서만 댓글이 존재하는 한국의 『오마이뉴스』에서는 댓글 자체도 주로 찾기 힘들었으며, 있다고 해도 광고 글과 같이 기사와는 상관없는 댓글이

<표 7> 기사에 대한 시민 영향력 차이

	댓글 유무		Total
	Yes	No	
오마이뉴스	31.5(63)	68.5(137)	100(200)
iReport	87.5(175)	12.5(25)	100(200)
Total	59.5(238)	40.5(162)	100(400)
	Value		df
Pearson Chi-Square	130.14***		1

*** p<0.001

<표 8> 유효 댓글 수 비교

	유효 댓글 수				Total
	0~10	11~50	50~100	100이상	
오마이뉴스	94(188)	5(10)	0.5(1)	0.5(1)	100(200)
iReport	78.5(157)	20(40)	1(2)	0.5(1)	100(200)
Total	59.5(238)	6.25(50)	40.5(162)	100(400)	100(400)
	Value			df	
Pearson Chi-Square	21.119***			3	

*** p<0.001

많이 있거나 기사와 관련된 유효한 댓글의 수는 상당히 적은 편이었다. 이외는 다르게, 미국의 『iReport』에서는 대부분의 기사에 있어서 댓글이 존재했고, 그들 대부분이 기사와 관계있는 유효한 댓글이었다.

이와 관련된 유효한 댓글의 수는 <표 8>에 나와 있다. <표 8>에서 볼 수 있듯이, 두 나라 간의 유효 댓글 수에 있어서의 통계적인 차이점은 매우 유의미했다($\chi^2=21.119$, $p < 0.001$). 결국 한국의 저널리즘은 미국의 경우에 비해 기사가 작성된 후, 그것을 읽는 독자 혹은 수용자들로 하여금 토론을 이끌어내는 것에 있어서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시민의 의견이나 토론이 거의 없다는 것은 생산된 기사가 공론장에서 숙의되는 과정에 대한 시민들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매우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9> 『오마이뉴스』 정부 관련 기사에 대한 시민 영향력 차이

	댓글 유무		Total
	Yes	No	
정부 관련 기사	77.08(37)	22.92(11)	100(48)
정부 비관련 기사	17.11(26)	82.89(126)	100(152)
	Value		df
Pearson Chi-Square	60.819***		1

*** p<0.001

<표 10> 『iReport』 정부 관련 기사에 대한 시민 영향력 차이

	댓글 유무		Total
	Yes	No	
정부 관련 기사	83.78(62)	16.22(12)	100(74)
정부 비관련 기사	89.68(113)	10.32(13)	100(126)
	Value		df
Pearson Chi-Square	1.483		1

한편, 두 시민저널리즘의 댓글을 분석함에 있어 단순히 댓글의 유무에 대한 분석에서 나아가 기사 내용에 따라 시민 영향력의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즉, 미국에 비해 주로 한국의 저널리즘에 있어서는 대통령, 국회, 정당 등과 같이 정치 및 정부에 관련된 기사일수록 그러한 기사에 대한 시민들의 상호작용성이 활발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9>에서 제시되고 있듯이 『오마이뉴스』에서는 정부와 관련된 기사 48개 중 77%에 해당하는 기사에서 댓글을 확인할 수 있었던 반면, 비정부 관련 기사에서는 상당수(83%)의 기사에 댓글이 없었다($\chi^2=60.819$, $p < 0.001$). 이와는 달리 『iReport』는 <표 10>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정부와의 관련성과는 상관없이 댓글이 존재하여 그 기사에 대해 시민들이 토론을 나누고 그 기사에 대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chi^2=1.483$, $p < .223$). 즉, 비정부 관련 기사의 경우에도 90%에 이르는 기사에서 활발한 댓글달기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은 미국에 비해 같은 뉴스를 수용하는 다른 독자들과의 토론이 익숙지 않고, 이미 생산된 기사에 대해 시민들의 영향력이 작으며 나아가 대체로 기사를 편식하여 받아들여서 특정 이슈 혹은 집단에 대한 관련성에 따라 영향력을 미치려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8.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의 대표적인 시민저널리즘 사이트를 대상으로 내용 분석을 통해 시민저널리즘의 실천 양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시민들의 영향력은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을 위해 총 400개의 뉴스 기사가 선정되어 분석되었고, 그 결과 시민저널리즘의 실천 양상과 시민 영향력에서의 차이도 다양하게 드러났다. 첫 번째, <연구문제 1>인 전통적인 저널리즘의 객관주의로부터의 탈피의 지표가 되는 관점의 불균형과 기자의 주관적 주장 여부는 한국의 『오마이뉴스』보다 미국의 『iReport』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면서 월등히 높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두 번째, <연구문제 2>에 대한 결과로서, 사회 문제를 제기하는 데 있어서는 미국의 시민저널리즘이 한국의 그것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결과를 가졌지만, 그 문제점에 대한 대안 혹은 해결책 제시에 있어서는 한국과 비슷하게 낮은 편으로 나와 두 시민저널리즘의 공통의 취약점으로 간주되었다. <연구문제 3>에 대한 결과로, 시민기자의 활동에 있어서 미국의 『iReport』가 더욱 활발했고, 취재원으로서의 시민 활용도는 한국의 『오마이뉴스』가 조금 더 앞서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또한 기사가 작성될 때에, 그 기사의 의제 설정에 있어서 시민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는 일반 시민 의견 포함 여부와 여론 조사 반영 여부를 분석했다. 그 결과 기사 의제 설정에 있어서 일반시민의 의견 반영 정도도 미국의 시민저널리즘이 한국에 비해 더욱 활성화되어 있다는 점이 나타났다. 하지만 미국의 시민저널리즘의 경우 여론 조사 반영에 있어서는 전체 기사 중 단 하나의 기사도 여론 조사 결과를

넣지 않았다는 결과를 볼 때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과학적 기법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고민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작성된 기사에 대한 시민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문제 4>에 대한 결과는 매우 유의미하게 도출되었다. 어떤 내용의 기사이든지 간에 그 기사에 대해 토론하며 독자들 스스로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출하고 기사에 대해 영향력을 펼치는 미국의 시민저널리즘에 비해, 한국의 시민저널리즘은 정부와 관련된 기사에서 상대적으로 시민들의 영향력이 더 강한 경향을 보여주었고, 그 외의 다른 기사에 있어서는 대체로 상호작용성을 발휘하지 않는 양상이 드러났다.

위와 같은 결과들을 통해 시민저널리즘의 발전 양상을 전망해보자면 현재 한국 시민저널리즘이 역동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아직 발전이 필요한 단계에 있는 상태라는 것과 이러한 한계점들을 파악하고 극복하기 위해 기사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시민 스스로가 시민저널리즘의 활성화를 위해 시민의 영향력을 발휘하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IT 강국으로 일컬어지는 한국사회에서 온라인 시민저널리즘이 이 연구에서 시도한 바와 같은 여러 가지 지표의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답보상태에 있는 이유는 앞서 설명한 한국 저널리즘의 전통이 계몽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과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고 본다. 자칫 계몽주의를 사회 문제를 제기한다는 측면에서 시민저널리즘의 정신과 맞닿아 있다고 간주하기 쉬우나 전자는 엘리트가 주도하여 다수의 국민들을 계도하는 하향식 의제설정의 표본이다. 시민저널리즘은 오히려 이와는 상반된, 즉 다수의 시민들이 아래로부터 위로 향하는 상향식 의제설정을 추구한다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 이러한 하의상달식의 시민저널리즘이 적극적으로 발현되지 않은 데는 유교적 전통과 근현대 권위주의적인 사회를 경험한 문화에 의해 영향 받은 원인도 있을 것이다. 자유주의 철학에 바탕을 둔 미국의 언론이 19세기 초 상업화의 도래와 민주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객관주의의 원칙을 정립시켰고, 아울러 20세기 말에는 시민저널리즘을 태동시킨 점은 이 같은 저널리즘 전통의 문화 간 차이가 동시대의 언론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여하튼 시민저널리즘의 정신은 기성 언론의 매너리즘을 극복하려는 차원에서 태동한 것이라는 사실에 입각할 때, 기사 생산과 소비의 주체가 되는 일반 시민들의 영향력을 다시금 인식하고 한국적 토양에 맞는 발전적인 양상을 추구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탈객관주의, 사회 문제 제기과 대안 모색 등 기사의 형식 및 내용과 관련된 물리적 지표뿐 아니라 시민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표에서도 한국 『오마이뉴스』가 미국 『iReport』보다 상대적으로 뒤져 있다는 점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의제 설정 등 뉴스 생산에 있어서 시민의 영향력이 『iReport』보다 『오마이뉴스』가 현저하게 작았으며, 생산된 뉴스에 대한 시민의 영향력 또한 저조한 양상을 보인 연구결과가 입증해주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시민저널리즘이 미국의 그것보다 시민들이 발휘하는 영향력이 낮게 평가되는 형국이지만, 주로 정부와 관련된 기사에는 비정부관련 기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한다는 <표 9>와 같은 결과를 볼 때 온라인 시민저널리즘이 한국의 정치발전과 민주주의에 상당한 기여를 하리라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다양한 지방색이 뚜렷하고 지역분권화가 정착되어서 지역공동체의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언론이 확보된 미국과 달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면에서 중앙 집중화된 한국 사회의 특징을 고려한다면, 이 같은 온라인 시민저널리즘이 정부 정책에 대한 관심 표출과 견제를 원활히 할 수 있는 효율적인 통로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의 시민들이 정부 정책이나 정치적 이슈 등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한다는 점은 한국과 같은 신흥민주국가에서 시민저널리즘이 더욱 발전된 민주주의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시민저널리즘의 부작용 중 하나인 감시견 기능의 상실을 상쇄시킬 수 있는 순기능적인 효과도 있는 것이다. 자칫 시민저널리즘을 추구하는 언론인들이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책 제시를 목적으로 정책입안자들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함에 따라 전통적인 저널리즘의 기능인 감시견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표출되었으나(김민남, 2003),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 표현과 모니터링은 그 같은 상황을 견제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불러올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상대적으로 시민저널리즘이 앞서서 태동한 미국의 『iReport』 경우에도 대안 모색이나 제안을 살펴볼 수 있는 기사는 극히 드물었고 한국과의 비교에 있어서도 그다지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은 앞으로의 온라인 시민저널리즘을 확고히 정착시키는 데 있어서 더욱 내용적인 충실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는 시민저널리즘의 수행과정과 관련된 문제일수도 있고, 더 근본적으로 바람직한 시민저널리즘의 지향점을 모색하는 문제와도 결부되어 있다. 시민저널리즘의 궁극적 목표가 공적 이슈나 사회 문제를 적극적으로 파헤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을 상기할 때 온라인 시민저널리즘의 전망이 밝기 위해서는 더 집중적인 노력을 통해 공적 사회문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감지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는 두 가지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한국과 미국이라는 두 나라를 비교함에 있어서 각국의 하나씩의 시민저널리즘만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이는 대표성과 일반화라는 것에 있어서 다소 취약점을 가지고 있고, 이 두 저널리즘 사이트로 한국과 미국의 시민저널리즘의 현주소를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모든 기사에 대한 분석이 아닌 검색어를 통해 도출된 특정 이슈 관련 샘플들로 분석한 점을 들 수 있다. 이슈의 차별성으로 인한 차이가 관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두 나라에 공통으로 핫이슈로 떠올랐던 시의성 있는 ‘유가(油價)’를 키워드로 삼아 샘플을 추출했지만, 이로 인해 특정 이슈에 국한된 분석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두 나라에 공통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이슈에 대해서도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또한 시민저널리즘 실천 양상이나 영향력에 대한 내용 분석뿐 아니라 그 실천을 통해 기사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사람들의 의식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하여 서베이나 실험과 같은 다양한 연구 방법에서의 새로운 접근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Ⅰ 참고문헌

- 김민남 (1998). 『공공저널리즘과 한국 언론』.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_____ (2003). 『시민 속의 언론, 공공저널리즘』.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_____ (2003). 『지역공동체와 공공저널리즘』.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민하 (2008). 한국 언론의 탐사보도와 시민공동체 형성의 전망: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 수상작의 공공저널리즘적 기능과 한계. 『한국언론학보』, 52권 4호, 105~128.
- 김병철 (2008). 시민저널리즘의 비주얼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사진과 그래픽의 내용분석.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16권 1호, 5~24.
- 안병길 (2003). 『시민속의 언론 공공저널리즘』.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윤태진·강내원 (2001). 온라인신문에 나타난 공공저널리즘적 특성에 관한 연구: <조인스닷컴>, <인터넷한겨레>, <오마이뉴스>의 기획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6권 1호, 57~84.
- 이민웅 (2002). 1990년 이후 언론 변화를 위한 대안적 접근들의 이념적 동질성. 한국언론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집, 391~419.
- 정회경·김사승 (2007). 온라인 시민저널리즘의 뉴스생산양식 특성에 관한 분석. 『한국언론학보』, 51권 2호, 124~152.
- 주정민·박복길 (2007). 지역방송 뉴스 특성, 구성방식과 지역성 구현과의 관계 연구. 『한국언론학보』, 51권 1호, 304~327.
- 최 영 (2002). 온라인신문에서의 시민저널리즘 가능성 연구: 일상적 실천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6권 6호, 33~63.
- 최 영·김춘식·Barnett, George A. (2004). 온라인 시민저널리즘 실천에 관한 한미 간 비교연구. 『한국언론학보』, 48권 5호, 110~137.
- 황용석 (2001). 시민저널리즘. 『관훈저널』, 42권 3호, 115~124.
- Thorson, Esther·심재철·윤도일 (2005). 공공 업무를 위한 다매체 캠페인의 미디어 시너지 효과: 미국 지방언론의 시민저널리즘 프로젝트. 『한국방송학보』, 19권 3호, 21~48.
- Chaffee, S. H. & McDevitt, M. (eds.), (1999). On Evaluating Public Journalism. In Glasser, T. L. (ed.), *The Idea of Public Journalism*. New York: Guilford

press.

- Eksterowicz, A. J., Roberts, R. & Clark, A. (1998). Public Journalism and Public Knowledge, *Harvard International Journal Of Press/Politics*, Vol. 3, No. 2.
- Fouhy, Ed. & Schaffer, Jan. (1995). Civic Journalism: Growing and Evolving, *Nieman Reports* 49.
- Friedland, Lewis A. (2001). Communication, Community, and Democracy: Toward a Theory of the Communicatively-Integrated Community. *Communication Research*, Vol. 28, No. 4.
- Friedland, L. A. & Nichols, S. (2001). Measuring Civic Journalism's Progress: A Report across a Decade of Activity, Paper available in the website of the Pew Center for Civic Journalism (www.pewcenter.org; Accessed on October 15, 2008).
- Kovach, B. & Rosenstiel, T. (2001). *The Elements of Journalism: What News People Should Know and the Public Should Expect*. New York: Three Rivers Press.
- Merritt, D. (1995). Public Journalism and Public Life, *National Civic Review*, Vol. 84, No.3.
- Rosen, J. & Merritt, D. (1997). *Public Journalism: Theory and Practice*. Dayton, Ohio: Kettering Foundation.
- Rosen, J. (1999). *What Are Journalists For?*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Schaffer, J. (2002). Civic Journalism: A Decade of Civic Innovation. Available at Pew Center Website (http://www.pewcenter.org/doingcj/speeches/s_spjheadline.html; Accessed on January 5, 2009).
- Voakes, Paul S. (1999). Civic Duties: Newspaper Journalists' Views on Public Journalism,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76.
- Woo, W. (2005). Defining a Journalist's Function, *Nieman Report*, Vol. 59, No. 4.

웹사이트

Pew Center for Civic Journalism [On-line]. Available: www.pewcenter.org (2009년 1월 5일 접속)

(투고일자: 2008.11.30, 수정일자: 2009.01.08, 게재확정일자: 2009.01.19)

A Comparative Study on Online Civic Journalism Practice and Civic Influence in the U.S. and Korea

Focus on News about the 'Oil Price'

Min-Je Yang

MA Student

(Department of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Min-Ha Kim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Korea has started to pay attention to civic journalism in recent years while it initially emerged in the United State since late 1980s. Furthermore, albeit some discernable limitations, the Internet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fertilizing civic journalism as indicated by the emergence of online news media and the increasing number of civic journalists engaged in the online activities. Whereas there are some patterns of civic journalism practice and the civic influence commonly observed in both countries, there are significant factors that distinguish the case of Korea from that of the 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two countries in terms of the patterns of civic journalism practice and civic influence. This goal has been achieved by analyzing 'CNN iReport' in the U.S. and 'Ohmynews' in Korea, both of which are prime civic journalism websites. Those websites have been compared in light of four standards of civic journalism: first, the degree of post-objectivism; second, the search for effective resolutions of social problems; third, civic engagement in the news making process to enhance bottom-up agenda setting; and finally, citizens' interaction with the news. The results reveal that the American civic journalism website is more likely to shed light on deviating from the principle of objectivity and seeking alternatives and resolutions of social problems. Moreover, it effectively utilizes civic engagement in the news

making process as indicated by the higher numbers of civic journalists and civic news resources. Also, readers' interaction with the news was found to be more active in the iReport website than in the Ohmynews.

Key words: civic journalism, civic influence, online journalism, civic engagement, public opinion